

##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大도약으로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6.11.(목)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주요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 국민주권정부 1년차,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

□ 지난 1년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빠르게 걷어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세정 현장을 발로 뛰며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현장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등 국민을 위한 세정에 열과 성을 다하였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국세청 핵심성과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조세정의 구현			
<b>✓ 새정부 첫 기획조사</b>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근절 티널링 업체, 주가조작 세력 등 27건 조사, 2,576억 추정, 38건 범칙처분(고발30, 통고8)	<b>비정상적 부동산 투기 탈세 엄단</b> ❑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49건, 86억 ❑ 초고가주택 거래 검증 104건, 318억 ❑ 고가아파트 증여 검증 103건, 77억 ❑ 다주택 임대사업자 15건 (진행중) ❑ 법인보유 고가주택 점검 2,639개 (진행중)		
<b>물가상승 조장 탈세 차단</b> 가격담합, 독과점 지위 악용 폭리 ❑ 117건 조사, 3,084억 추정, 21건 범칙처분(고발4, 통고17)		<b>해외 은닉재산 환수</b> ❑ 국제 공조망 구축, 지난 1년간 전체실적의 90% 339억 환수	
<b>재산 추적조사 강화</b> ❑ 체납관리단, 특별기동반 역대 최대 3.1조 징수			
선제적·능동적 세정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			
<b>✓ 60년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b>	<b>①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b> ❑ 현장 상주기간이 줄어든 조사 88%	<b>② 정기세무조사 시기선택제</b> ❑ 개인 1,200만명, 법인 100만개	<b>③ 중점검증항목 사전공개</b> ❑ 법인카드사적사용, 가공인건비계상등 10개
<b>국민 중심의 합리적 세법해석</b> ❑ 티문피해사업자 대손세액공제 150억 ❑ 폐업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107억 ❑ 산후도우미 바우처 면세 혜택 856억혜택	<b>납기연장·조기환급</b> ❑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개 ❑ 관세피해 수출기업 2.4만개	<b>정기 세무조사 유예</b> ❑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1.2만개 ❑ 매출액 10억 미만 소상공인 1,243만명 ❑ 스타트업기업 1만개	<b>간이과세 배제기준 정비</b> ❑ 영세사업자 4만명 세무담 완화

**【 ① 반사회적 탈세·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조세정의 구현 】**

- 반칙과 특권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반드시 세금으로 환수한다는 원칙 아래, 악의적 탈세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 새 정부 첫 기획조사로, 그간 본격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업체와 ‘주가조작’ 세력 등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27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25.7월)하여 총 2,576억 원을 추징하고 38건을 범칙처분(고발 30건, 통고 8건)하였다. 최근 2차로 주가조작, 터널링, 불법리당방 등 31건을 조사(‘26.5월)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을 엄단하고 있다.
- 가격담합과 독과점 지위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며 서민부담을 가중시킨 물가 상승 조장 탈세는 ’25.9월부터 네 차례에 걸친 대대적 조사(117건)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3,084억 원을 추징하고 21건을 범칙처분(고발 4건, 통고 17건)하여 조세정의 뿐만 아니라 서민 물가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 물가상승 조장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 현황(총 117건) >**

- ▶(‘25. 9.) 원자잿값 상승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린 「생활물가 밀집 업종 탈세자」 조사
- ▶(‘25.12.) 가격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물가불안 부추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조사
- ▶(‘26. 1.)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 조사
- ▶(‘26. 2.)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 야기하는 탈세자」 조사

- 우리 경제의 자본이 비생산적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부동산 탈세에도 엄정 대응하고 있다. 대출규제 시행 직후 증가한 외국인 고가주택 거래 검증(‘25.8월)을 시작으로 부동산 거래 전반의 편법 탈세유형을 빠짐없이 점검하여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하고 있다. 탈세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현황 >**

- ▶(‘25. 8.) 6·27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49건 검증, 86억 원 추징**
- ▶(‘25.10.) ‘부모찬스’ 이용해 초고가주택 취득한 연소자 등 **104건 검증, 318억 원 추징**
- ▶(‘25.12.) 강남4구·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2,077건) **103건 검증, 77억 원 추징**
- ▶(‘26. 3.) 임대사업자 제도를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15건 검증<진행중>**
- ▶(‘26. 4.)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소유 고가주택 **2,639개 검증<진행중>**
- ▶(‘26. 下) 사업자대출 유용 주택취득 검증<유예기간 부여 후 하반기 검증예정>

- 성실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끝까지 찾아내 징수하였다.
- 체납관리단을 최초로 출범시키고, 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및 지방 자치단체와의 합동수색 등 전방위적 노력의 결과, 지난 한 해('25.5.~'26.4.) 동안 추적조사를 통해 국세청 개청 이래 최대인 3.1조 원을 징수하였다.

※ 국세청 최초 압류물건 공개 매각 실시('26.3월)

- ▶ 합동수색으로 압류한 명품가방 등과 수장고에 보관 중인 압류물품에 대한 온라인 경매를 실시, 국민들의 관심 속에 총 9.1억 원 징수\*(197개 매각)

\* (1차, '26.3.11.) 161개, 체납액 7.5억 원 총당 / (2차, '26.3.25.) 36개, 체납액 1.6억 원 총당

- 세금을 떼먹고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공조 범위를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넓혀,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인 339억 원을 지난 1년 만('25.5.~'26.4.)에 환수하였다. 최근 라이베리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로도 징수공조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해외 은닉 재산 환수 실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 ② 선제적·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 】

- 다른 한편으로, 기업하기 좋고, 장사하기 좋은 세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60년간 이어져 온 세무조사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꾸었다.
- 조사팀이 기업 사무실에 몇 달씩 상주하던 낡은 관행을 혁파하여 현장 상주 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개선하였다. 실제 88%의 조사에서 현장 상주 기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 (현장의 목소리) “조사팀이 상주하지 않으니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었고, 업무도 평소처럼 볼 수 있어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습니다.”
- 탈루 혐의가 없어도 때가 되면 받게 되는 정기 세무조사는 3개월 범위에서 납세자가 조사시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개인 1,200만 명과 법인 100만 개가 그 대상으로 납세자는 결산, 주주총회, M&A 등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과거 조사 시 반복적으로 과세되던 주요 항목 10개\*를 미리 공개하여 신고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 \* 법인카드 사적사용, 개인계좌를 통한 매출누락, 가공 인건비 계상, 연구개발비 부당공제 등을 국세청 누리집(nts.go.kr)과 세무조사 통지 시 제공되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통해 안내

□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더불어 성장해나가기 위해 선제적이고 따뜻한 세정 지원도 폭넓게 실시하였다.

○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법해석에서 벗어나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국민 중심 세법해석을 실시하고 있다.

< 국민중심 세법해석 사례 >

- ▶(25. 9.) 티몬 피해사업자 대손세액공제 가능 → **339명, 150억 원 환급**
- ▶(25.10.)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해석 → **7만 명, 107억 원 환급**
- ▶(25.12.) 산후도우미 바우처 면세 해석 → **본인부담금 856억 원 면세 혜택**

○ 중동전쟁 피해기업(32만 개)과 관세피해 수출기업(2.4만 개)에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으로 자금 사정에 숨통을 틔워주고, 매출액 10억 원 미만 소상공인(1,243만 개) 및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1.2만 개)과 스타트업(1만 개)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였다.

○ 도심에 위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에서 배제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 간이과세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를 정비('26.5월), 영세사업자 4만 명의 세부담을 덜어주었다.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大도약으로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 창출의 해”**

□ 국세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모토로, 1년차에 다진 기반 위에서 국민들이 기대를 뛰어넘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한다.

**【 ① ‘국세 징수기관(Tax Service)’을 넘어 ‘통합 재정수입기관(Revenue Service)’으로 】**

□ 현재 300여 개 법률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고 있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하여, 국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통합징수를 본격 추진한다.

○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자 국세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글로벌 추세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고 있다.

※ 해외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대표 사례

- ▶ 국세청에서 국세외수입을 통합징수 : **노르웨이**
- ▶ 국세청 외 다른 기관에서 통합징수 : **미국**(재무부 재정서비스국, BFS)
- ⇒ 우리나라는 **노르웨이와 같이 국세청에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를 추진**

-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함으로써, '국세 징수기관(NTS, 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재정 혁신을 위한 '통합 재정수입기관(KRS, Korea Revenue Service)'으로 도약할 것이다.
- 이를 위해, 오는 7월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통한 체납자 실태점검으로 체납자 맞춤형 징수체계를 신속히 마련하고,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과 전산 인프라·조직·인력 등 통합징수 기반을 충실하게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추진방향 >

구분	법률체계 및 내용		체납자정보	소득·재산 정보
증진	300여개 법률에 근거 4,500개 기관 각각 관리 	자력집행권  민사소송으로 징수 多	간접 강제 수단  간접 강제수단 미비 	각 부처별 분산 관리  각 부처는 체납자 소득·재산정보미비 
개선	통합징수법으로 일원화 	민사소송 없이도 압류·공매가능	관허사업제한 대금지급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국세청이 기보유한 소득·재산정보를 체납정리에 활용 

【 ② 국세행정 AI 대전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K-AI」 세정 구현 】

□ 국세행정 AI 대전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국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진정한 서비스 기관으로 발돋움한다.

- 국민들이 '세무서에 올 필요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는' 최상의 납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생성형 AI 챗봇\*·전화상담과 홈택스 AI 검색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 '26년 1월부터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장려금 신청에 적용 → 총 이용자 수 18만 명, 총 질의 건수 35만 건

- AI 기술 활용방안, 정보보안·보호 방안 등 보다 구체화된 AI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를 지속 수집 및 정제하는 한편, 과제 개발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상담 서비스를 넘어 세금신고와 탈세적발 등 국세행정 전 분야로 AI 기술의 활용범위를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본격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27년부터 본사업에 착수하여 과제개발을 완료하면, '28년부터는 AI가 세금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맞춤형 세무컨설팅도 제공하는 혁신적인 납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된다.
- 또한, 수십년간 축적해온 세무조사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 기업의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탈세 혐의가 자동 추출되는 스마트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완성하여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누구보다 엄정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AI 대전환」 추진 로드맵 >

일정	세부 추진사항								
'26.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새로운 AI 서비스 지속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등 신규서비스 제공</li> <li>- 상반기에 이어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지속 제공</li> </ul> </li> <li>▶ AI 운영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I 기술 활용 및 정보보호 등 운영정책 마련</li> </ul> </li> <li>▶ AI 학습자료 및 과제개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자료 지속 수집, AI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자료 정제</li> <li>- 과제별 세부기능 확정 및 과제 설계도 완성</li> </ul> </li> </ul>								
'27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사업 착수하여 국세행정 3대 분야 전면 혁신               <table border="1" data-bbox="395 1518 1442 2022"> <thead> <tr> <th data-bbox="395 1518 561 1563">3대 분야</th> <th data-bbox="561 1518 1442 1563">세부 과제</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95 1563 561 1713">납세서비스 혁신</td> <td data-bbox="561 1563 1442 1713"> <b>“국민 누구나 세무서 방문없이 모든 세무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릭 몇 번으로 세금 신고가 끝나는 AI 전자신고</li> <li>▶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AI 세금 컨설턴트</li> </ul> </td> </tr> <tr> <td data-bbox="395 1713 561 1863">공정과세 강화</td> <td data-bbox="561 1713 1442 1863"> <b>“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능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 더욱 엄정히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화된 빅데이터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li> <li>▶ 은닉 재산을 빠르게 추적하는 AI 체납관리</li> </ul> </td> </tr> <tr> <td data-bbox="395 1863 561 2022">세정 효율화</td> <td data-bbox="561 1863 1442 2022"> <b>“국민의 불편은 신속히 해소하고, 직원은 숨은세원 발굴 등 핵심업무 집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의 민원처리를 돕는 AI 민원로봇</li> <li>▶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 AI 업무지원</li> </ul> </td> </tr> </tbody> </table> </li> </ul>	3대 분야	세부 과제	납세서비스 혁신	<b>“국민 누구나 세무서 방문없이 모든 세무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릭 몇 번으로 세금 신고가 끝나는 AI 전자신고</li> <li>▶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AI 세금 컨설턴트</li> </ul>	공정과세 강화	<b>“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능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 더욱 엄정히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화된 빅데이터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li> <li>▶ 은닉 재산을 빠르게 추적하는 AI 체납관리</li> </ul>	세정 효율화	<b>“국민의 불편은 신속히 해소하고, 직원은 숨은세원 발굴 등 핵심업무 집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의 민원처리를 돕는 AI 민원로봇</li> <li>▶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 AI 업무지원</li> </ul>
3대 분야	세부 과제								
납세서비스 혁신	<b>“국민 누구나 세무서 방문없이 모든 세무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해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릭 몇 번으로 세금 신고가 끝나는 AI 전자신고</li> <li>▶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AI 세금 컨설턴트</li> </ul>								
공정과세 강화	<b>“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지능적 탈세와 고의적 체납에 더욱 엄정히 대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도화된 빅데이터 기술과 AI 알고리즘을 결합한 AI 탈세적발</li> <li>▶ 은닉 재산을 빠르게 추적하는 AI 체납관리</li> </ul>								
세정 효율화	<b>“국민의 불편은 신속히 해소하고, 직원은 숨은세원 발굴 등 핵심업무 집중”</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의 민원처리를 돕는 AI 민원로봇</li> <li>▶ 단순·반복 업무를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 AI 업무지원</li> </ul>								

**【 ㉓ 반사회적 탈세·체납이 설 곳 없는 확고한 조세정의 확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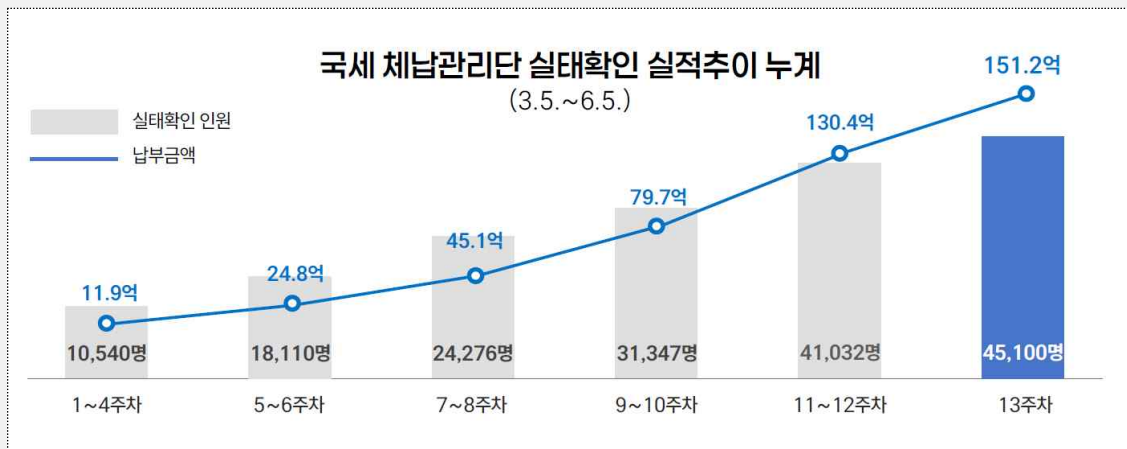
- 앞선 두 과제와 함께, 국세청의 변함없는 지향점은 조세정의의 확립이다.
- 담합 등 불법행위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탈세부터 시장 교란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부동산 탈세까지, 편법과 불공정이 남아있는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반사회적 탈세는 설 곳이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분명히 새긴다.
- 특히, 현재 진행중인 법인소유 고가주택과 슈퍼카 등의 사적사용에 대한 검증과 같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탈세행위는 계속해서 근절해 나간다.
- 조세정의의 중요한 한 축인 체납대응을 위해 1만 명 규모 「체납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 체납자의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여 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체납관리의 비정상성을 해소하는 한편, 생계형 소액체납자에게는 재기의 손길을 내밀어 따뜻한 세정의 가치를 이어간다.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채용 및 근무 일정 >**

차수	분야	규모	채용 일정	근무 일정
1차	국세	500명	▶ 2월 선발완료	▶ '26.2.26. ~ 10.8.
2차	국세	2,500명	▶ 선발 진행중 (6.24. 최종합격자 발표)	▶ '26.7.1. ~ 12.23.
	국세외수입	3,000명		
3차	국세외수입	4,000명	▶ 7월 채용공고 예정	▶ '26.10.1. ~ 12.23.

※ 1차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성과(3.5.~6.5.) : **151.2억 원 징수**(예산 53억 원 투입대비 285%)

\* 지난 5.27. 관서장회의 보도자료 발표실적(3.5.~5.22.) 99.8억 원 대비 **51.4억 원 추가 징수**



-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년이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였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보답하는 大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AI 대전환을 반드시 성공시키고, 체납을 일제 정비하며, 통합 재정수입기관으로 거듭나 국민 중심의 세정을 흔들림 없이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	책임자	과 장	이선주 (044-204-2301)
		담당자	서기관	안형민 (044-204-2302)
<협조>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 국세외수입징수기획과	책임자	과 장	박성무 (02-760-9161)
		담당자	사무관	김유학 (02-760-9162)
<협조>	정보화관리관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책임자	과 장	전승한 (044-204-4401)
		담당자	사무관	심은진 (044-204-4402)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 국세청 핵심성과

## Part 1. 반사회적 탈세 체납에 단호히 대응하여 조세정의 구현

### 1 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

####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근절

주가지조작, 터널링(자산·이익 빼돌리기) 등  
소액주주 피해유발 탈세자 조사 27건



추징 2,576억  
범칙처분 38건

\* '26.5월 2차 조사 31건 추가 착수

#### 물가상승 조장 탈세 근절

가격담합, 독·과점 지위를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탈세자 조사 117건



추징 3,084억  
범칙처분 21건

#### 비정상적 부동산 투기·탈세 엄단



'25. 8

외국인 고가주택 취득자 검증  
49건, 86억



'25. 10

초고가주택 거래 검증  
104건, 318억



'25.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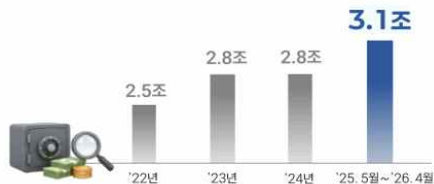
고가아파트 증여 검증  
103건, 77억

- 다주택 임대사업자 조사('26.3)
- 법인보유 고가주택 점검('26.4)
- 사업자대출 유용  
주택취득 점검('26.下)

### 2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 재산 추적조사 강화

고액·상습체납자 추적조사 징수 실적 **역대 최대**



체납관리단  
최초 출범

특별기동반·  
지자체 합동수색

사해행위  
취소소송 확대

#### 해외 은닉재산 환수

해외 은닉재산 환수 전체 실적의 90%인  
**339억 환수**



징수공조 범위 확대 아시아 → 유럽, 아프리카

## 국세청 핵심성과

Part 2. 선제적·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뒷받침

### 3 60년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

####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한 짧게!’



현장 상주기간 단축된 조사  
88%

####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시기 선택!’



개인 1200만명  
법인 100만개

#### 중점 검증항목 사전공개

‘신고실수를 방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 예방’



과거 조사시 반복 과세되던  
주요항목 10개 미리공개

### 4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따뜻한 세정지원

#### 국민 중심 세법해석



“세법을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적극해석하였습니다”

- 티몬 피해사업자 대손세액공제 339명 150억 환급
-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 비과세 7만명 107억 환급
- 산후도우미 바우처 본인부담금 856억 면세 혜택

#### 피해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지급 하였습니다”



- 중동전쟁 피해기업 32만개
- 관세피해 수출기업 2.4만개

#### 정기 세무조사 유예 지원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유예하였습니다”

- 매출액 10억미만 소상공인 1,243만개
- 물가안정 모범업소 1.2만개, 스타트업 기업 1만개

#### 불합리한 간이과세 기준 정비

“불합리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정상화하였습니다”



배제지역 1176개 중  
544개 정비

영세사업자 세무담완화  
4만명